

예배 및 모임안내

2019-47호 2019년 11월 24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교육관 7번 교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봉사자 기도 모임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01	12. 08	12. 15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유미경 집사
성 경 봉 독	장준화 형제	유미영 집사	유미경 집사
헌 금 위 원	김효종 집사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안 내 위 원	김남희 집사	김남희 집사	김남희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빌, 골, 살전, 살후, 딤펴, 딤후, 딤펴)
2. 선교사 선물 - 드러진 헌금은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에 보내드립니다.
3. 11월 생일 - 이현(8일) 조정화(14일) 임미수(26일) 김남희(27일) 추문경(29일)
4. 성찬예식 - 다음 주일은 성찬예식으로 드립니다.
5. 기관 총회 - 자치회는 총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나눔의 시간 - 김영희 권사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임미수 성도(26일) 김남희 집사(27일, 음11월1)
생일	추문경 자매(29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택,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27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72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48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이수현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계 17 : 1 - 5 (신p415) 이수현 집사
(Offenbarung 17:1-5)
- 설 교 Predigt **바벨론 심판 예언**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50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유미영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11월 생일 축하 친교실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

우리가 버는 돈은 우리의 공동체를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 덕분에 베푸는 일에 넉넉합니다. 개척 초기부터 교회 재정의 10퍼센트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예산으로 떼어 놓기로 제직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첫 열매 기금”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 부 사역자의 누나가 자녀 네 명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유가족들은 너무 가난해서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분의 장례식 비용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자금과 양육비를 위한 기금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로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오신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도착하셨을 때, 예약했던 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첫 열매 기금을 사용해서 그분들이 머물 곳을 구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소집해서 가구들을 모았습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가구와 살림도구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아파트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깨달은 교회 사람들의 넉넉한 베풀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알고 있기에,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자연스럽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 James Bryan Smith 목사
(Friends 대학교 교수, 교목)

*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납하기를 원하신다.
- 작곡가 Patrick Kavanaugh -